

오피니언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김성열



주 5일 수업제인 '놀토'가 전면적으로 시행된 지 한 달여의 시간이 흘렀다. 2005년부터 월 1회, 2006년부터 월 2회 실시되었던 놀토는 올해 3월 새 학기를 맞으면서 기숙형 학교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한 전국 99.6%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다.

안 대화와 소통, 경험의 공유를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고, 세대 간의 차이를 좁히려는 노력을 하면서 가족의 교육적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놀토의 이러한 교육적 의미를 살리려면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놀토’의 진정한 의미 살리려면

다. 먼저,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지역사회 기관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공간과 시설,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지역사회가 여가 활용에 대한 주민들의 다양한 필요와 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과도기적으로 학교가 여전히 안전한 공간으로서 대체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런데 학교가 언제까지나 계속해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없는 일이다.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기관이 나서야 한다.

그래서 놀토에는 학생들이 학교 '안'이 아니라 학교 '밖'에서 체험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학교에서 정규 수업만 있는 날

이 아니라, 앞으로는 학교가 주도하여 제공하는 대체 프로그램도 없는 날이 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학교 시설 이외에는 이용하기에 적당한 공간이나 시설이 없는 지역에서는 학교가 유용한 시설일 수 있다. 그렇지만, 그런 경우에도 학교보다는 지역사회 학교 시설 등을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제공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른 한편으로 놀토에 제공되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는 취약계층의 학생들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비용이 드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는 학생

들에게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지원해 주어야 한다.

놀토의 확대가 계층간에 유의미한 교육적 경험의 차이를 낳고 이로 인해 더욱 심화될 수도 있는 교육에서의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은 필수적이다. 놀토의 전면적 시행은 지역사회의 구성원을 키워내는 일에 이렇게 지역사회가 책임질 것을 요청하고 있다. 다시 말해, '온 마을이 아이를 함께 기른다'는 평생교육 정신의 구현과 그 실천을 요청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지역사회의 노력과 책임의 증대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

은 학습 또는 공부에 대한 사고의 전환이다. 우리는 공부라고 하면 전통적인 학문 교과를 학습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왔다. 그래서 학교교육에서는 교과 지식을 이해하고 기억하며, 분석하고 응용하며 종합하는 능력을 중시하였다.

이제 우리 모두 공부는 전통적인 교과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라는 좁은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교실에서 배운 지식을 실제적 경험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은 물론 일상적인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 다양한 예술과 체육활동을 통하여 정서적 능력을 함양하거나 단체 활동을 통해 인간관계 능력을 키워나가는 것들이 모두 다 공부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여전히 우리가 길러내야 할 인간은 불균형적으로 지적인 측면에서만 발달한 인간이 아니라, 지·덕·체가 골고루 발달한 전인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요컨대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의 여러 기관들이 학생들이 놀토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공간,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누구에게나 제공하는 책임을 다할 때, 그리고 교과지식의 학습만이 공부라는 편협한 생각에서 벗어날 때 놀토의 진정한 의미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경남대 부총장·교육학)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때아닌 강풍 피해 기상이변 대책 서둘러야

광주·전남지역 기상관측 이래 '4월 순간최대풍속'을 보이는 등 태풍급 강풍이 몰아쳤다. 선박 전복으로 사람이 죽고, 대형 크레인과 전선주가 휩쓸려 무너지는가 하면 농작물 비닐하우스 파손 등 그 피해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하지만, 돌풍이 멈추기만 기다릴 뿐 뾰족한 대책이 없어 기상이변에 대비한 재해시스템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3일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에 강풍경보가 발표된 가운데 여수의 순간최대풍속이 초속 31m를 기록하고, 진도 30.7m, 완도 29.1m, 광주 18.7m 등 돌풍이 몰아쳤다. 신고된 피해만도 200여 건에 이른다.

3일 해남 앞 해상에서는 선박이 뒤집혀 선원 1명이 숨졌고, 영암에서는 한 선박제조업체 25t급 크레인 2대가 넘어지면서 건축물과 차량(7대) 등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딸기 출하를 앞둔 담양지역에서는 50여 동의 비닐하우스가 파손돼 농민들이 애물단지조로 변한

딸기 앞에서 애를 태우고 있다. 광주에서도 아파트 담장과 건물기둥이 무너져 행인들이 부상을 입었으며, 서구청 청사 천장 패널이 떨어져 나가고 도로 간판이 날아가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기상학적으로 이번 강풍은 한반도 대기 하층부에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유입된 데 반해 상층부에는 차가운 공기가 빠르게 남하한 것이 원인이 됐다. 그러나 기상이변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한반도 기후변화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강풍이 몰아칠 가능성 크다는 얘기다.

기상이변에 대비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해시스템 재정비가 우선이다. 기존 재해시스템으로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에 신속히 대응할 수 없다. 또 각종 건축물 및 농작물 시설 등도 예기치 못한 재해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와 시공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인천시 재정과탄, 이 지역도 남의 일 아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돈이 없어 공무원 임금을 제때 못 주는 사태가 현실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지난 2일 직원들에게 지급할 급식비·직책수당 등 복리후생비 20여억 원을 마련하지 못해 하루 뒤에야 지급했다. 재정난으로 사실상의 월급인 수당을 제때 주지 못하는 것이다.

인천시의 빚은 3조1800억 원으로, 급년 예산 7조9983억 원의 39.8%에 이른다. 시는 2009년 '세계도시속진'을 개최하면서 수백억 원의 적자를 냈고, 문화경기장이 있음에도 5000억 원을 들여 2014년 아시아게임 주경기장 건설을 강행했다. 이 때문에 올해 6000여억 원이 넘는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판이다.

문제는 최악의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광주·전남도 남의 일이 아니라는 데 있다. 자치단체의 대부분이 적자 운영에 따라 지방채 수입으로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곳이 수도무적이다.

지자체 운영의 기준이 되는 재정자립도를 보면 전남도는 20.7%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이며, 광주시도 47.5%로 6개 광역시 중 가장 낮다. 기초단체의 경우 광산구를 제외한 광주 4개 자치구와 나주시, 신안·진도군 등 16개 시·군은 자체 재원으로 공무원 급여도 줄 수 없는 형편이다.

지방 재정이 이렇게 악화된 데는 무엇보다 정부가 감세정책을 추진하는 바람에 지방에 내려보내는 교부금이 크게 줄었고, 정부가 맡아야 할 사회복지비 지출을 지방에 떠넘긴 게 큰 요인이다. 단체장들이 무분별한 개발이나 축제 등 선심성 사업을 벌이는 것도 문제다.

정부는 먼저 지방에 교부금 지원을 늘리고 사회복지비 지출을 환원시키는 방안부터 찾아야 한다. 지자체와 의회 역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예산 편성과 정부부터 주민들이 평가하는 '참여예산제'도 더욱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의료 칼럼



류성룡

'뭉개 약이 뭉치 모르니 남이 좋다고 하면 일단 해보자' '면하는 게 없어도 값싸고 효과 있으면 그만이지'라는 식의 경솔한 생각으로 자신의 귀중한 몸을 사이버 의료업자에게 맡기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최근 광주에서 무면허 업자에게 벌침 시술을 받은 환자가 혼수 상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돌이키기 힘든 참 안타까운 일이다.

벌침은 벌이 갖고 있는 독으로 자극을 주어 병을 치료하는 것으로 천연의 유해자극물을 이용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대시켜, 질병을 치료하는 즉 이독치법(以毒治病)의 방법이다.

벌침의 주성분은 단백질의 일종인 멜라린과 아파민으로 강력한 항염증, 면역 조절 기능이 있다. 따라서 허리디스크·척추관 협착증 등 척추질환, 퇴행성 관절염·류마티스관절염 등 관절질환, 안면 신경마비와 같은 신경계 질환 등으로 고통받는 만성 질환 환자들에게 많이 시술된다.

하지만 살아 있는 벌을 잡아, 바로 인체에 시술할 경우 독의 양을 적절하게 조절하고 이물질 제거가 힘들다. 그러므로 한방의료기관에서는 살아있는 꿀벌의 독낭에서 독을 과학적으로 추출해 정제 가공한 독을 사용한다. 그 추출한 독을 적절한 혈에 주입하는 방식으로 침의 효과와 독의 약리적인 효과를 동시에 보는 봉독약침을 시술하고 있다.

16세기 스위스의 의학자이자 화학자인 파라셀수스는 "모든 물질은 독이다. 독이 없는 것은 없다. 올바른 양이 독과 약을 결

정한다."라고 했다. 즉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용량조절이나 적절한 시술법을 따르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인체에 매우 해로운 독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봉독을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로 전문적인 지식 없이 적절하게 양을 조절하지 않고 시술할 경우, 최근 일어난 사고처럼 상상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면 봉독이 인체에 미치는 과민반응을 살펴보자. 즉시 나타날 수 있는 국소반응(즉시형 국소반응)은 가려움, 부종, 붉게 변하는 발적 등으로 대부분의 환자로부터 관찰되며, 이것은 봉독의 활성 성분에 의한 정상적인 반응이다. 이때는 기본적으로 별다른 처치를 하지 않아도 되고, 얼음찜 등으로 냉각시키면 된다.

그러나 아나필락시스 쇼크 같은 즉시형 전신반응은 혈압이 떨어지고, 전신에 무력감이 생기고, 안면이 창백해지고, 미식거리고 토하고, 맥박이 빨라지고, 오한이 들고, 실

신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 경우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이런 과민반응일수록 시술을 받은 후 짧은 시간 안에 발생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초기 대처가 매우 시급하고 중요하다.

과민반응은 좋은 청장년층이거나 여성일수록, 한 부위에 집중적으로 봉독 시술을 받을 경우, 혹은 시술 횟수가 7~10회 시점에서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는 한의학계의 보고가 있다. 그리고 평소 약물 알레르기 소인이 있거나 심장혈관계, 신장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과 임신부, 전신 체력이 저하된 경우에는 봉독 시술을 가급적 받지 말아야 한다. 반면에 봉독에 대해 신체가 적절한 반응을 보이고 좋은 효과가 나타나려면 환자의 체력 등 전신상태가 양호해야 한다.

이렇듯 봉독은 적주 관절 등 만성 근육골격계통 질환치료에 효과가 좋아 환자에게 인기가 있으나 잘못 사용했을 경우 매우 위험할 수 있다. 때문에 봉독을 시술받고자 하는 경우 시술 경험이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 한방의료기관에서 충분한 상담과 진찰 후 시술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경희한의원장)

벌침 효과있지만 주의해야

기고



황규석

얼마 전 TV에서 '소통부재의 사회적 비용은 연간 300조로 국민소득의 27%로 추산되며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보도를 보고 오래 전 지인들로부터 들은 에피소드가 생각났다.

어느 부서에 엄격하기로 소문난 부서장이 갑자기 직원들을 모아 놓고 오늘은 정말 허심탄회하게 우리 부서의 문제가 뭐지 이야기해보자고 했다고 한다. 평소 분위기대로 모두들 침묵하자 부서장은 "오늘은 어떤 말을 해도 수습하고 앞으로 부서운영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한다"며 직원들에게 대화

에 참여하도록 거듭 당부했다.

그래서 평소 애를 아끼던 직원이 용기를 내 부서장의 부서운영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하여 조금은 과격하지만 솔직하게 건의했다. 그런데 그 직원은 무슨 얘기든지 수용하겠다는 부서장으로부터 바로 그 자리에서 면박을 받고 한동안 패시브에 시달렸다고 한다.

에피소드를 듣고 다 같이 유쾌한 시간(?)을 가졌지만 씁쓸한 뒷맛을 생각하면 결코 웃을 수만은 없는 이야기이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소통을 단순히 직원과 대화의 시간을 많이 갖고, 사업에 대하여 협의하고, 언론이나 소셜네트워크 등에 알리는 것이 전부로 인식하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소통의 시작은 대화임은 분명하지만 소통의 기본 자세는 역지사지(易地思之), 즉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며 행동한 결과에 대하여 상대방이 공감했을 때 비로

소 소통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농촌진흥청은 FTA 확대, 축산물이격 하락, 사료 값 급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입장에서 공감하고 행동하는 소통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농업현장과 새로운 소통의 트렌드를 만들어 가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대표적 사례 중 하나가 한우·젖소·양돈·양계 등 주요 축종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축산농가 권역별 맞춤형 1:1 컨설팅'이다. 컨설팅은 사료비용 절감을 위한 TMR 등과 같은 자급사료 생산, 고급육 생산을 위한 암소개량 등 한우개량, 번식능력 향상을 위한 번식·사육관리, 가족질병관리, 농장경영 등과 관련하여 대상지역에 대한 사전 기술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컨설팅 후 농업인이 요청하는 경우 농장방문을 통한 현장컨설팅도 병행해서 추진하는데 참여 농업인의 만족도가 95% 이상이다.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만큼 농산물의 지리적 표시제도가 중요하다.

우리 농특산물 중 지리적 표시제가 적용된 것은 나주 배, 고흥 한우, 완도 전복 미역 다시마, 장흥 키조개, 벌교 꼬막, 이천 쌀, 의성마늘, 영양고추, 성주참외 등 40개 정도라고 한다. 그러나 아직도 국민들의 인지도가 낮고 선진국처럼 상표권적 권리보장이 안 되는 단점이 있다. 거기다가 2000만 원 정도의 추가비용으로 특허청에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 별도로 등록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원에서 개발한 젖소번식관리시스템에 농업인의 아이디어를 결합하여 현장적용 시험을 해 본 결과 번식효율이 23% 추가 향상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시험에 참여한 농업인들은 새로운 기술에 모두 만족해 하면서 다른 농가에도 신속하게 확대 보급해 줄 것을 건의했다. 우리 원에서는 이들의 건의사항을 내년도 새 기술시범사업에 반영, 농업인들과 소통과 공감의 연구-지도사업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올해는 농촌진흥사업 5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농촌진흥청은 어려운 보릿고개를 넘어 국민의 식량문제를 해결한 70년대 녹색혁명과 80년대 백색혁명으로 전국민이 공감하는 소통을 한 경험이 있다.

올해 새로운 소통의 트렌드는 '농업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자'다. 농업인이 공감하는 성과를 이룩하자라는 것이 목적이자, 소통을 통해 다시 한 번 국민들이 공감하는 제2의 녹색혁명 성과를 이루길 기대한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장)

국제화시대 농산물 지리적 표시제 적극 시행을

저작권 또는 특허법을 모르는 국민들은 아마도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농산물의 지리적 표시제를 아는 국민들은 아주 드물다.

우리 농업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국민들이 농업의 중요성과 신도불이 농산물을 사랑하도록 정부가 농산물 지리적 표시제를 적극 홍보해야 한다. 농산물의 지리적 표시제를 쉽게 말해 해당 농산물의 브랜드 이름이다. 이미 EU 쪽에서는 자신들의 농특산물 브

랜드에 대한 지리적 표시제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즉 그 대표적 사례로써 프랑스 상파뉴 지역의 고유 상표인 '샴페인'의 명칭 사용을 금지해달라는 프랑스 측의 요구도 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샴페인이 그저 축하 행사 때 터뜨리는 술이라고만 알았지 그게 프랑스의 고유 브랜드인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특히나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후랑크 소시지'나 '볼가리아 요구르트' 같은 명칭도 해당국가에서 문제삼으면 이 또한 맘대로

인터넷에서 만나서 광주일보

www.kwangju.co.kr

無等鼓

'야구천재' 이종범(42·KIA)이 지난달 31일 전적 은퇴를 밝히 야구계와 팬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개막전 엔트리에서 빠진 데 대해 '골육' 대신 '은퇴'라는 승부수를 던졌고, 선동렬 감독은 팀 리빌딩을 위해 필요한 결단을 내렸다고 한다.

'올 것이 왔다'는 전문가들의 견해도 많다. 하루 빨리 팀 리빌딩을 해야 하는 선 감독과 현역 최고참 이종범의 동거는 살얼음을 걷는 험곡이었고, 결국 개막 일주일 앞두고 '은퇴' 소식이 전해졌다.

은퇴 발표 후 자신의 미래에 대해 장고했던 이종범은 구단의 코치인 수 등 지도자 승계에 대한 제안을 완곡히 거절하며 은퇴식만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KIA로서는 이런저런 이유로 해설자절부터 프랜차이즈 스타들을 명예롭게 은퇴시키지 못했던 불명예를 씻어 낼 수 없게 돼 후폭풍이 시달리게 됐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 협상이 빠질 수 없다. 과거에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내 것을 최대한 많이 챙기는 협상 '1.0시대'였다. 정해진 범위 안에서 내가 최대

한 많이 얻는 것이 목적인 협상 1.0은 단장은 좋지않은 영연하기 힘들다.

이러한 분배적 협상의 한계를 극복한 것이 통합적 협상(윈윈 협상), 즉 협상 2.0이다. 맞서는 이유로 협상을 하는게 아니라 다양한 옵션을 제시해 협상을 풀어가는 것으로 좀더 진화한 것이다.

최근에는 상대의 감정, 인식, 행동을 건드리는 협상, 즉 협상 3.0이 뜨고 있는

협상의 진화



다. 상대의 심리적 만족감을 극대화하는 '가치 중심 협상'이다. 왜 협상을 하는지, 얻고 싶은 가치가 무엇인지 먼저 생각해야 한다.

미국 프린스턴대는 아인슈타인을 영입할 때 그가 제시한 연봉(3000달러)보다 훨씬 많은 1만달러를 안겼고, 이 계

약으로 인해 아인슈타인은 술한 다른 명문대의 러브 콜에도 흔들리지 않고 프린스턴대와의 의리를 끝까지 지켰다. 이처럼 최고의 협상이란 '가치'를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종범이 원했던 것은 구단이 자신의 가치에 대한 배려가 아니었을까.

/최재호 경제부장 lion@kwangju.co.kr

광주일보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김민준, 노성준, 김민준, 편집국장 최영환
1952년 4월 20일 創設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업1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 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대금인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여론조사부 2200-621, 광고이케팅부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대표 FAX 222-4918) 사진부 2200-693, 사회부 2200-616, 조사부 2200-571, (대표 FAX 222-4267) 전산팀 2200-685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이케팅부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